

작년 수능도 최하위...전남교육 '걱정되네'

국어·수학 영역 전국 16·17위 전년보다 더 떨어져 '만년 꼴찌' 광주 소폭 하락 불구 상위권 유지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2018학년도 수능)에서 전남 수험생들의 성적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광주 학생들은 2017학년도 수능보다는 성적이 소폭 떨어졌으나 여전히 상위권(과목)을 가리지 않고 상위권을 유지했으며, 성적 하위권 학생 비율도 크게 않았다. 반면 전남 학생들은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 17위를 기록하는가 하면 성적 하위권 학생 비율도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높게 나타났다.

◇전남, 수능 성적 만년 최하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일 발표한 '2018학년도 수능성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남 학생

들은 표준점수 평균에서 국어는 16위(94.8점), 수학(가형) 17위(89.5점), 수학(나형) 16위(96.9점)를 기록했다.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영어는 표준점수가 산출되지 않는다.

전남 학생들은 전년도 수능에서도 국어 15위, 수학(가형) 16위, 수학(나형) 15위를 기록, 최하위권에 올랐으나, 지난해 수능에서는 1단계씩 더 떨어졌다. 이웃 전북 학생들의 경우 2018학년도 수능 표준점수 평균에서 국어는 7위(97.8점), 수학(가형) 13위(93.3점), 수학(나형) 13위(98.0점)로 나타났다.

전남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수험생 가정의 경제적 형편, 학교 규모 축소, 사교육환경 열악 등 주어진 조건 어느 것 하나 놓칠 게 없지만, '교육이 학생은 물론 전남의 미래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전남 수험생들은 모든 영역에서 성적우

수 학생(1·2등급)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편에 속했다. 국어 1·2등급 학생 비율은 6.6%(16위), 수학(가형) 6.7%(17위), 수학(나형) 8.8%(16위), 영어 18.6%(16위)였다.

성적하위(8·9등급) 학생 비율이 높은 점도 우려스럽다. 광주의 하위 학생 비율이 국어 8.7%, 수학(가형) 7.2%, 수학(나형) 9.1%, 영어 4.1% 일때, 전남은 각각 13.9%, 20.5%, 10.4%, 6.9%였다.

◇광주는 소폭 하락- 지난해 수능에서 광주 학생들은 영역별 표준점수 평균에서 국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위(99.6점), 수학(가형) 3위(101.6점), 수학(나형) 3위(100.7점)로 나타나 여전히 전국 상위권에 올랐다. 전년도(2017학년도) 수능에서는 국어 3위, 수학(가형) 2위, 수학(나형) 2위였으나 한계단락 떨어진 셈이다.

광주 성적 하위 학생 비율이 국어 8.7%

(3위), 수학(가형) 7.2%(3위), 수학(나형) 9.1%(6위), 영어 4.1%(4위) 적다는 점은 성적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뒤쳐지는 학생들이 많지않다는 점에서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

17개 시도에서 표준점수 평균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였다. 국어, 수학(가형), 수학(나형) 모두에서 제주는 1위를 차지했다. 시도 내 학교 간 표준점수 평균 차이가 가장 작은 지역은, 다시 말해 지역 내 학교간 성적 편차가 크지 않은 곳은 국어는 세종, 수학은 가·나형 모두 제주로 나타났다.

표준점수 평균은 국어, 수학 가·나형 모두에서 여학생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1·2등급 비율은 국어, 영어에서 여학생이, 수학(가형)에서는 남학생이 높았다. 표준점수 평균, 1·2등급 비율 모두 사립학교가 국립학교보다 높았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분위기 달아오른 충장축제 충장축제 개막을 앞두고 광주시 동구 금남공원에 조형물이 설치돼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충장축제는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금남로·충장로·예술의거리·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최근 4년 광주·전남 학생 7만명 법정전염병 걸려

후진국형 전염병 결핵도 106명

지난 4년간 광주와 전남지역 초·중·고교생 중 7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법정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자료'(2014~2017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법정감염병에 걸린 초·중·고교생은 광주 3만9352명

(학교 2862곳), 전남 3만748명(2799곳) 등 모두 7만100명(5661곳)에 이른다.

법정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제1군(장티푸스 등)·제2군(홍역 등)·제3군(결핵 등)·제4군(지카바이러스 등)·제5군(수족구병 등)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연도별 감염 건수는 2014년 6320명(988곳), 2015년 8237명(1162곳), 2016년 3만2560명(1794곳), 지난해 2만2983

명(1717곳)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학교별로는 초등생이 4만266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생 1만7853명, 고등학생 1만943명, 특수학교 98명 등의 순이었다. 인플루엔자·수두·성홍열·수족구병은 초등학생이 많이 걸렸으며, 결핵은 유독 고등학생들에게 많이 발병했다. 같은 기간 '후진국형 전염병'으로 분류되는 결핵에 걸린 학생도 106명이나 됐다.

/김형희 기자 kimyh@kwangju.co.kr

수질검사 대장균 등 검출

충장사 약수터 사용금지

대각사 약수터 사용중지

광주 지역 약수터 8곳 가운데 2곳에서 총대장균군 등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무등산 충장사 약수터는 지난 4월부터 5차례 수질검사서에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쇄될 가능성이 커졌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8월 지역 약수터 8곳을 대상으로 총대장균군을 비롯해 일반세균, 부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등 6개 항목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남구 대각사 약수터에서 총대장균군과 부원성 대장균군이 각각 검출됐다. 광주시는 지난 4월부터 5회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은 충장사 약수터에 사용금지, 대각사 약수터에 사용중지 조치를 내렸다.

검사서에서 수질 기준을 처음 초과하면 사용중지, 2차례 이상 초과하면 사용금지 조치를 내린다. 지난 7월 벌인 수질검사에서는 충장사와 광산구 용진 약수터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용진 약수터는 8월에는 세균군 등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 적합 판정으로 돌아섰다.

광주시는 5회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은 충장사의 경우 이용객이 거의 없고 수질 부적합률이 높아 먹는 물 공동시설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광주에는 무등산의 너털강·옛 중심사관리사무소·산장광장·정풍심터·충장사, 남구 대각사, 광산구 산장·용진 등 8곳의 약수터가 있다. /오광록 기자 kroh@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8 | 해질 18:14 | 달뜨기 --- | 달짐 14:14

나들이 하기 좋은 날
아침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 다소 쌀쌀해요.

광주	맑음	11/25	보성	맑음	7/23
목포	맑음	14/24	순천	맑음	12/25
여수	맑음	15/23	영광	맑음	10/24
나주	맑음	8/25	진도	맑음	11/23
완도	맑음	14/24	전주	맑음	11/24
구례	맑음	7/25	군산	맑음	11/23
강진	맑음	10/25	남원	맑음	8/24
해남	맑음	8/24	흑산도	맑음	17/22
장성	맑음	8/24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동~동	0.5~1.0
	먼바다	북~북동	0.5~1.5	북동~동	0.5~1.5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동~동	0.5~1.0
	먼바다(동)	북~북동	0.5~1.5	북동~동	0.5~1.5
	먼바다(서)	북서~북	0.5~1.5	북~북동	0.5~1.5

◇생물지수

- 관심: 식중독
- 높음: 자외선
- 맑음: 미세먼지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0:47	12:58	07:44	20:47
여수	08:47	22:30	02:21	15:54

◇주간 날씨

4(목)	5(금)	6(토)	7(일)	8(월)	9(화)	10(수)
☀	☁	☁	☀	☀	☀	☀
12/25	18/23	20/24	17/23	13/24	12/23	11/23

고법 부장판사 이상 179명 중 광주·전남 대학 출신 2명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고위 법관 중 광주·전남 소재 대학 출신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법관은 모두 179명이다.

이 가운데 78.8%인 141명이 서울대 출신이며, 광주와 전남지역 대학 출신은 2명으로 조사됐다.

또 현행 헌법 이후 임명된 대법관의 출신 대학을 살펴본 결과, 광주와 전남 소재 대학 출신은 1명 뿐이었다.

오 의원은 "고위 법관 및 대법관에 특정 대학 출신이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사법부 내에서 비서울대 출신이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시중 판매 선크림 60%, 산호 유해성분 포함

국내에서 시판되는 자외선차단제(선크림) 가운데 약 60%가 해양생물인 산호에 해로운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녹색연합은 지난 8~9월 두 달에 걸쳐 시중에 판매되는 선크림 7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약 60%인 47개 제품이 1개 이상의 산호 유해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44개 제품은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2개 제품은 옥시벤존, 1개 제품은 두 성분을 모두 함유하고 있었다.

한국에는 제주도 남부해안에 연산호가 서식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제조사는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을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자 또한 그런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며 "정부는 유해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하와이 주는 산호와 해양생물 보호를 위해 2021년 1월부터 해변에서 유해 화학성분이 들어간 자외선차단제를 바르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한다. /연합뉴스

Approved Partner | Hearing Instrument | SIEMENS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 본 투시도는 고적대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New Square

-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 >>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 >>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 >>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입점확정

용산타워

- >> 편의점, 돈까스전문점, 치킨오피스, 이동통신 등 업종 선입대 완료
- >> 멀티역세권, 교통망확보
-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조은프라자

- >> 용산지구 리스빌 정문, 모아엘가 후문, 대성베르힐 정문 바로앞 상가
-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봉선동 남부경찰서 바로 옆 용산지구 4,000여 배후세대 상권!!

300여평 초대형 이마트 에브리데이

분양 임대 **1899-8947** | 시흥 | (주)SB빌딩 | (주)성원 | (주)조은플러스 | 시흥 | 기보종합건설